4일 구례군 관계자들이 화가마을 기반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파주 헤이리 갤러리 더 차이 전경.

구례에 '화가마을' 들어선다

예산 26억 들여 당동마을에 조성
홍익대 김태호 교수 등 31명 입주
파주 헤이리 처럼 문화 명소 가꿔

구례에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같은 화가마을이 들어선다.

구례군은 4일 "광의면 온당리 당동마을에 화가 31명이 입주하는 화가마을을 2011년 완공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가마을에는 8만5천950㎡(2만6천여평)의 부지에 창작과 거주 기능을 갖춘 31동의 작업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례군은 예산 26억원을 들여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부지 구입과 작업실 건립은 화가들이 개인 부담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김태호, 박기웅 교수, 박수미(화가), 이희삼(사진), 유경희(큐레이터)씨 등 예술인 31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홍익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캔버스 위에 스무 가지 이상의 색을 겹겹이 올리고 칼로 깎아낸 '내재율' 연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또 박 교수는 지난 1994년 제15회 휘나르국제미술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가이며, 유씨는 악기박물관 등지에서 근무한 전문 큐레이터이다.

이들은 올 11월 기반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구례군과 정식 계약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개별 작업실 건립에 들어간다.

구례군은 이들에게 개인당 500~661㎡(150~200평)의 부지를 3.3㎡(1평)당 10만~15만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화가들은 오는 2011년 중순까지는 작업실 건립을 마쳐야 한다. 이들은 조만간 구례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각 작업실의 형태는 조각, 회화, 사진 등 각 장르의 성격에 맞게 화가들이 꾸밀 수 있고 별도의 전시실 설치도 가능하다.

또 화가마을 조성 뒤 구례 일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업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입주 화가들은 홍익대 건축학과 김동훈 교수를 총괄 기획자(MA)로 선임했다. 김동훈 교수는 마을의 전체 설계와 함께 화가별 면담 등을 통해 작업실 세부 설계 중이다.

김동훈 교수는 "서울 지역 화가들이 강원도 평창 일대에 작업실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전혀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서 "구례는 강과 산이 가까워 상상력을 자극하고, 겨울에도 비교적 춥지 않은 최적의 장소여서 화가들이 앞다퉈 입주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가들이 자유롭게 토론·창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외부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함께 연구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위치한 헤이리 예술마을에는 박물관, 도예미술관, 서점, 작가스튜디오 등 126개의 독특한 디자인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국내 대표 문화 명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k5826@kwangju.co.kr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순천 연주회
7일 순천문예회관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사진〉 연주회가 7일 오후 7시 순천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선청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인인 이 씨는 양 손을 합쳐 손가락이 네 개뿐이지만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 씨는 이번 공연에서 사람들에게 친숙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희아송' 등을 들려준다.

이 씨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석,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1-650-33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 '119동 705호'
7일 궁동극장 무대에

극단 청춘의 '연극교실 공연 만들기 워크숍'작품인 '119동 705호'가 무대에 오른다. 7일 오후 4·7시 예술의 거리 궁동극장.

'119동 705호'는 급하게 (119) 치료(705)가 필요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번 연극은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연극교실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재와 주제, 제목까지 모든 것을 함께 만든 창작극이다. 극단 대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무료 공연이다.

연극은 한 가족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문제를 무대에 형상화했으며 그 해결점을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극단 청춘은 오는 7월부터 4주간 제2기 연극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픈 클래스를 연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극본에 나와 있는 대사와 상황 등을 골라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구자범 효과'

김미은
문화부 차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수장으로 독일에서 활동중인 구자범씨가 언급된 건 지난해 말부터였다. 1년간의 객원 체제와 공채까지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광주시가 꺼내든 카드였다.

광주문예회관측이 구 씨와 접촉에 나섰지만 걸림돌은 연봉이었다. 기존 지휘자의 연봉은 6천200만원. 울산·대전시향의 1억원~1억5천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였다. 회관측은 올해 8천만원으로 올린 후 내년에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조건 등을 조율하자며 귀국을 요청했다.

구씨는 2월초 귀국, 단원들과 워크숍을 가졌고 이후 광주시와 면담을 통해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연봉 10만달러, 비행기표 제공, 주 3일 근무 대신 연간 10회 연주· 90일 체류. 한마디로 구씨를 위한 '맞춤형 조건'이었다.

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이었지만, 한 지역 예술인의 말처럼 이 지역의 문화 마인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문화계가 현재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누가 시의 '마인드'를 바꿔놓았는가 하는 점이기도 하다.

구씨 영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 분위기다. 이번 기회에 시향의 대대적인 변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쉽게도 시향에 대한 외부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1년 넘게 지휘자가 공석이었던 탓에 시향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무사안일에 젖은 일부 단원들의 실력 부족은 연주회에서 그대로 드러나 클래식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유학파 젊은피 수혈문제도 자주 언급됐다. 조직 내 '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2일 기자들과 만난 구 씨는 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조례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었지만 '까다로울 정도'로 다짐을 받았다고 했다. 일종의 이면계약인 셈이다. 단원선발 과정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향 운영과 관련해 '전권'을 위임받은 듯했다. 그는 문화계 고질병인 학연·지연에서도 자유롭다.

구씨 영입은 시립예술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듯하다. 만약 단원선발이나 오디션, 작품 제작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 타단체도 그 물결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 역시 시향에만 파격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시립단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마니아들은 '수준'을 이야기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봉급 등 개선되어야 할 점도 분명 있지만 단원들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구자범 효과'가 시향과 시립예술단체 더 나아가 문화판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지켜볼 일이다.

/mekim@kwangju.co.kr

국악 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
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다문화 가정을 다룬 국악 뮤지컬 '러브 인 아시아'가 8일 오후 5시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연된다. 고흥의 한 마을에 시집 온 아시아 지역의 며느리와 전통을 고집하는 한국인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러브 인 아시아'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혜란 교수가 병원에서 만난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극본을 썼다.

다문화 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우선 초청하며, 시민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통해 관람 신청 할 수 있다. 문의 02-481-10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영성씨 '남도 옛 건축물' 사진전 ▶5~11일 무등갤러리

사진작가 김영성씨가 5~11일까지 광주시 동구 궁동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소쇄원, 환벽당 등 남도 옛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이곳을 지켜온 선비들의 올곧은 정신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건물을 지었던 선조의 멋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살아있는 작품들이다. 문과 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산자락과 나무의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뤘다.

취가정

김씨는 또 오는 10월에는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서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직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4차례의 개인전과 1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